

보도 자료 **더불어민주당** **4선 인천계양구(을) 국회의원 송영길**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회관 818호 Tel 784-8957 Fax 784-0319 E-mail songyounggil@na.go.kr



보도일시 : 18. 10. 22(월) 이 보도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의원, “인도 단체비자 내년초부터 시행 예정”

국내 관광업계의 숙원사업이었던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가 내년 초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2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을)은 “지난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세계 7대 항공여객 대국인 인도에 대해 단체비자를 허용해 국내 관광산업 위기를 조기에 극복해 나가자고 제안했으며, 외교부는 내년 초부터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고 밝혔다.

외교부가 송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질의답변서를 보면, “외교부는 인도에 대해 내년 초부터 단체비자 혹은 단체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 중”이며, “정부가 추진 중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인 인도 국민에 대해 신속한 비자발급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고 했다.

외교부의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낸 송영길 의원은 “인도는 해외여행의 70%가 단체여행으로, 일본은 2007년부터 인도 국적 단체여행객에 대해 단체비자를 발급

*[별첨] 인도 단체비자 관련 외교부 서면질의답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이원식 영사서비스과장, 김나원 외무사무관, 02-2100-8166)

1. 관광·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인도 단체비자 신설 필요

□ **우리부는 인도에 대해 내년초부터 단계 비자 혹은 단계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임. 이는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인 인도 국민에 대해 신속한 비자발급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단체 비자 발급 대상은 5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이며, 단체 전자 비자의 경우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하여 비자 신청인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에 대해서만 단체 전자비자를 시행중에 있음.
 - 법무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대해 내년초부터 단체 전자비자를 시행할 예정 끝.


해왔다” 면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인도 여행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를 시행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세계 7위권)을 제고하고, 국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 면서 질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한-인도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16년 GDP 1조 4,040달러 중 5.1%인 716억 달러를 차지하며, 152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먹거리” 라면서, “내년 초부터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가 허용되면 중국 사드조치 및 북핵 위협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 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끝>

[별첨] 인도 단체비자 관련 외교부 서면질의답변

2018년 10월 2일(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협력위원회 위원장 / 외교통상위원회 / 인천 계양구를
20대 국회의원 송 영 길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송영길 의원실(02-784-89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

*[별첨] 인도 단체비자 관련 외교부 서면질의답변

(재외동포영사기획관실, 이원식 영사서비스과장, 김나원 외무사무관, 02-2100-8166)

1. 관광·항공수요 창출을 위한 인도 단체비자 신설 필요

□ **우리부는 인도에 대해 내년초부터 단계 비자 혹은 단계전자비자를 발급하는 방안을 법무부와 협의중임. 이는 우리정부가 추진중인 신남방정책의 주요 대상 국가인 인도 국민에 대해 신속한 비자발급의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양국간 인적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 단체 비자 발급 대상은 5명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관광객이며, 단체 전자 비자의 경우 대사관 혹은 총영사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신청 및 심사가 가능하여 비자 신청인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음.
 - 현재 중국에 대해서만 단체 전자비자를 시행중에 있음.
 - 법무부는 신남방정책의 일환으로 인도를 포함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에 대해 내년초부터 단체 전자비자를 시행할 예정 끝.


해왔다”면서, “우리나라도 조속히 인도 여행객에 대한 단체비자 제도를 시행해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의 국제경쟁력(세계 7위권)을 제고하고, 국내 관광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필요가 있다”면서 질의 배경을 밝혔다.

현재 한-인도 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송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2016년 GDP 1조 4,040달러 중 5.1%인 716억 달러를 차지하며, 152만 여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래먹거리” 라면서, “내년 초부터 인도 관광객에 대한 단체비자가 허용되면 중국 사드조치 및 북핵 위협 등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 산업의 위기를 조기에 극복하는 발판이 될 것” 이라고 덧붙였다. <끝>

[별첨] 인도 단체비자 관련 외교부 서면질의답변

2018년 10월 2일(화)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특별협력위원회 위원장 / 외교통상위원회 / 인천 계양구를
20대 국회의원 송 영 길

 <p>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p>	<p>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송영길 의원실(02-784-89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p>
---	--